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현재와 미래

the here and the hereafter of KAAB(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 KAAB)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의 지정을 받고 있으며, 또한 건축사법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본원의 업무가 법적인 효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축 졸업생들의 국제적 유동성을 촉진하고 더불어 건축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상호인정 국제기구인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가 2008년 발족된 것이다. 캔버라 어코드가 결성된 일은 전 세계 건축학교육 인증기관들의 설립 역사상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당당히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캔버라 어코드와 함께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국제 건축학 교육 인증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프로그램 인증사업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9년 5월에 UNESCO-UIA 건축학교육 인증/인정 위원회[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UVCAE)]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성과들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도 산재해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인증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뿐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기준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캔버라 어코드 회원국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전문학위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러한 성과의 혜택이 반드시 후학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인증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 일 것이다.

본 인증원은 2010년 현재까지 전국의 21개 대학의 전문학위 프로그램의 인증작업을 마쳤다. 올해에도 9개 프로그램이 인증실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대다수의 건축대학들이 인증준비에 여념이 없다. 일부에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의 교육이 획일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건축학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과도기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각 대학들의 특색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고도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제도로 가기위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진일보한 인증사업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 등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본원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아직까지 인증 제도를 설립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동양권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을 대상으로 국제 인증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기대상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몽골에서는 국내 인증사업을 참관하기 위해 금년 내에 우리 인증원을 방문할 예정으로 국제인증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급변하는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 역할과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이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루어낸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앞으로 우리 후학들의 활동무대가 국내가 아닌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의구 / Lee, Eui-koo, KIRA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  
· 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